

6. 산상수훈 (2)

지난 주에 이어.... 의(義, righteousness) => 추상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 행위

- 구약: 하느님의 구원 행위 => הַיְשׁוּבֹתַי lit., the righteousnesses of YHWH => "The saving acts of the Lord" (NRSV, 마 6:5)
- 마태 5:20 (너희 의가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 마 6: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 NIV. "Be careful not to do your 'acts of righteousness' before men, to be seen by them. 주의. "piety"(NRSV); "선행"(공동번역). piety(경건)라기보다 의(義)로운 삶

A. 의(義)의 행위: 구제, 기도, 금식 (three pillars; Islam's five pillars=> + creed, pilgrimage) cf. 도마복음 6

1. 구제(ἐλεημοσύνη, 자비) => 5:7 (οἱ ἐλεήμονες. "공홀히 여기는 자/자비를 베푸는 자")
 - 왜? 피해상황 (탐욕/억압 vs. 섬김/나눔)
 - 당위성 문제--구제 해? 말어?--가 아님.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 삶의 문제
 - 보이기 위함(행위) vs. 일관된 삶(intention). 전자는 기준/지배체제 유지--그 안(honor/shame society)에서 자신의 지위유지; 후자는 천국(하느님 나라) 실현
2. 기도
 - 이방인의 기도 => "God-botherer"; 형식보다 motive 가 중요. 여기서 이방인='교회' 밖의 사람들--정체성 문제 (5:47=>18:17)
 - 우리들 문제. 산기도/통성기도/방언기도 => 무엇이 문제인가? (참조. "신의 길, 인간의 길" 1부)
 - 주기도문-- 다시 읽기
 - 기도 예문 => 이렇게/이런 식으로 (οὕτως)
 - 9-10 절. 3 인칭 명령형 (your name, your kingdom, your will) => Praise & Confession/찬양과 고백의 언어. Q. "as in heaven and on earth" => 어디에 연결되나? (your will or all of the above)

Πάτερ ἡμῶν ὁ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ἁ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 ἐλθέτω ἡ βασιλεία σου· γενηθήτω τὸ θέλημά σου, ὡς ἐν οὐρανῷ καὶ ἐπὶ γῆς·	Our Father who is in heaven(s) Let your name be hallowed; Let your kingdom/empire come; Let you will be done, as in heaven and on earth (as in heaven—even on earth)
---	--

- 11-13 절. 2 인칭 명령형 (양식, 빛/죄, 시험/재판) => petition/간구. 13 절: 우리를 시험 속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lead us not into trial/temptation), 악한 자(ὁ πονηρός not πονηρία/evil/악)로부터 구하소서

3. 금식(fasting <=abstinence, 절제)
 - 무엇으로부터, 또 무엇을 위한 단절/절제인가?
 - 정체성과 삶에 있어 물질(혹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는가? 그것과 단절 속에서도 여전히 내 정체성/삶을 지켜낼 수 있나?

B. 하느님과 맘몬(재물)--마 6:24

- 종교,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Q: 네 하느님이 누구냐? (고전적 물음), 지금의 말로 바꾸면, 네 가치관/철학/믿음이 무엇이나?
- 재물을 버리란 말인가? 재물과 하느님은 같은 레벨이 아님으로 비교대상일 수가 없다. 그럼 그 의미는? 물질만능주의, 그 배후의 이데올로기, 곧 로마제국의 가치관을 경계. 재물 자체는 사랑/멸시의 대상이 아님. (만약에 그렇다면--하느님의 그런 대상이라면--정말 불쌍한 하느님!)
- 하느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유가...
 -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합 3:17-19)
 - 내일을 위해 염려치 말라 =>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로 마음 상하지 말라. 내가 (염려)할 수 있는 일은 내 정체성(복음, gospel)과 행실(의, righteousness) 확인. 곧 두 주인을 섬길 때.
 -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 The Serenity Prayer (평온을 비는 기도)

생각해 보기

1.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2. 내가 생각할 수 있는/행할 수 있는 금식/절제된 행위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우리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God, give us grace to accept with serenity the things that cannot be changed,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which should be changed,
and the Wisdom to distinguish the one from the other.

(Reinhold Niebuhr (1892-1971))